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New Work Schedule on the Allocation
of Time by Married Couple

기전여자전문대학 가정과
전임강사 홍향숙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박수경

Dept. of Home Economics, Kijeon Women's Junior College

Instructor : Hyang sook Hong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h. D Candidate : Soo Kyoung Park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II. 이론적 배경 | V. 연구결과 |
| 1. 생활시간과 생활시간의 배분 | VI. 요약 및 결론 |
| 2. 조기출퇴근제의 개념 및 특성 | 참고문헌 |
| III. 연구문제 | |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new work schedule developed in some companies, which means starting the work at 7 and finishing at 4. This article studied on the effects of new work schedule on the time allocation by married couples. It was compared with the time spent by married couples in group of old work schedule. And it studied whether the change of work schedule affects the time allocation and satisfaction of couples.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1993. One hundred and twenty nine couples were considered to be valid sample for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Couples with new work schedule did perceive changes in the time allocation.

2. The total time for transportation and market work of husbands was decreased and leisure time showed a increase when there is new work schedule.
3. Husbands with new work schedule perceived that they spent more time in the household work, leisure, sharing with their children, and sharing with spouses than husbands with old work schedule.
4. Couples with new work schedule showed higher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than couples with old work schedule.

I. 문제제기

시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똑같은 양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개인이나 가족의 목표성취와 타자원의 사용 및 개발, 만족감이 좌우된다. 따라서 시간사용은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형태나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특히 급격한 산업화가 그 특징인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선택의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시간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면서 생활시간의 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담당하는 제일선의 사람들로 장시간노동을 하고있어 여가와 휴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교통체증의 문제로 생활시간을 배분하는 데 있어 노동을 위한 이동시간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나 개인적 돌보기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한국 최대의 기업조직인 삼성그룹이 그룹혁신의 일환으로 조기출퇴근제를 실시하여 그룹내 전사원의 근무시간대 변경과 근무시간의 양을 줄임으로써 사원들의 생활시간사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남편들의 근무시간대의 변화는 남편 자신들의 생활시간배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인들의 생활시간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생활시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과연

조기출퇴근제가 개인의 생활시간배분을 변화시키고 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실태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될 수 있는가를 다른 일반 근로자부부의 생활시간 실태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남편의 생활시간배분과 부인의 생활시간배분을 조사하고, 생활시간인지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후, 조기출퇴근제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기출퇴근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반 근로자부부의 생활시간과의 비교를 통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시간의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간관리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에 이용함으로써 연구의 의의를 가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시간과 생활시간의 분류

1) 생활시간의 의미

시간은 모두에게 1일 24시간씩 주어진 객관적이며 가장 공평한 자원이지만 개인의 관리능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시간은 그 양이 제한되어 있고 다른 자원들처럼 축적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생활에 제약요소로서도 작용한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자원이며 시계로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므로 공간과 함께 인간생활의 내용을 파악하는 척도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는 개인의 생

활양식과 생활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의 생활행동을 측정하고 나아가 집단과 국가간의 국민생활 행동을 비교하는데 유효한 도구가 되고 있다(한경미, 1991, 16-22).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의 공통되는 관심사로 시간을 현명하게 소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생활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Robinson(1977)은 시간사용에 의하여 사회기능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산업사회에서는 특히 시간관리가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현대사회는 생활양식이 아주 복잡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인간이 생활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당해야 할 영역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여 시간은 보다 희소한 자원으로써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다. 이렇게 희소하고 값비싼 자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 생활시간의 분류

생활시간의 분류방법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며, 같은 목적이라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김외숙 외, 1993). Rice와 Tucker(1986)는 시간사용의 유형을 크게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으로 분류하고, 노동시간에는 수입노동, 가사노동, 자원노동시간을 포함시켰고, 비노동시간에는 수면, 자유시간, 여가를 포함시켰다.

Feldman과 Hornik(1981)은 생활시간을 노동과 노동이 아닌 일로 분류하고 후자에 필수적인 일, 가사노동, 여가를 포함하여 가사노동을 노동이 아닌 일(nonwork)에 포함시켰다.

Szalai(1972)는 12개국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한 생활양식의 국제간 비교연구에서 생활내용을 96개 활동으로 나누고 이것을 37개 범주로 축소한 후 다시 직업노동에 관련된 일, 가사노동, 기타 가사의무, 자녀양육, 개인적인 필요시간, 직업과 관련없는 교통시간, 공부와 조직에 참여한 시간,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의 9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일본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연구는 하루 24시간을

크게 수입생활시간과 소비적 생활시간으로 나누고 소비적 생활시간속에 생리적 생활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외숙 외, 1993, 36-37).

생활시간에 관한 국내조사로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살펴보면, 생활행동을 생활필수, 노동, 여가로 대별하고 생활필수시간에는 수면, 식사, 신변잡일을, 노동시간에는 일, 가사, 통근을, 여가시간에는 개인적인 교제, 안정과 휴식, 취미·오락, 신문·잡지·책, 라디오, TV시청을 포함하고 있다(한경미, 1991).

이러한 생활시간의 분류는 몇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의 독특한 생활내용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을 중복사용할 경우는 단편적인 분류로 시간사용의 의미를 모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시간의 영역구분이 모호한 시간영역(예를 들어 자녀돌보기)이 몇가지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사무직 근로자들의 생활시간을 크게 근무시간, 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적 돌보기시간의 5가지로 나누었다. 근무시간에는 사무실 도착에서 사무실을 나올 때까지로 점심시간을 포함시켰고, 이동시간은 출근과 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며, 가사노동시간에는 식사준비·설거지, 청소·침구정리, 세탁·다림질, 자녀돌보기, 시장보기의 시간을 포함하였다. 여가시간은 운동, 신문·TV시청·라디오 청취, 음악감상·독서, 어학·취미 강습, 친지와 교제활동, 가족원과의 교제활동을 내용으로 하였고, 수면시간, 몸단장, 아침·저녁의 식사시간을 개인적 돌보기 시간으로 분류하였다.

2. 조기출퇴근제의 의의 및 특성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요변수로 살펴본 조기출퇴근제의 의의와 그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 그리고 그 특성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조기출퇴근제의 의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조기출퇴근제는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이 1993년 7월 8일부터 실시한 근무시간대의 변경으로, 기존의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의 근무시간을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으로 조정하였다.

‘삼성개혁’의 첫번째 조치로 실시된 조기출퇴근제는 ‘질 경영’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의식과 체질, 제도등을 과감히 바꾸고,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왔던 근무체계를 질과 효율을 추구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새로운 경영풍토를 체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측은 설명하고 있다(삼성사보, 1993년 7월호).

이 조기출퇴근제는 전 임직원이 퇴근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관리, 어학연수, 동호회 활동 등 자기개발과 충실한 가정생활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며, 러시아워를 피함으로써 출퇴근시간을 줄이고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조기출퇴근제 실시이후 삼성직원들은 빈번하게 행하던 야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후 4시면 기계처럼 퇴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근후 시간에 연극, 영화감상, 스포츠,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행사 등 과거 소홀히 하였던 부분들을 챙기며 인간적인 여유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93년 8월 9일자).

2) 조기출퇴근제의 특성

그동안 장시간 직장노동과 출퇴근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이동시간이 요구되던 삼성직원들은 여가생활시간이나 가족생활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도 전국민 중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87년 현재 8시간 8분이었고, 이동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은 전국민 평균 1시간 25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직장인에게만 한정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이동시간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는 교통난을 감안한다면 1993년 현재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출퇴근시 교통난으로 인한 이동시간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장시간 직장노동(이동시간을 포함한)은 직장인 본인의 생활시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시간

에도 영향을 미친다. 森ます美的의 연구(1989)에 의하면 장시간 노동은 남편의 사회·문화적 생활시간과 수면시간을 감소시키며, 가사노동을 거의 없는 것으로 만들고, 부인과 자녀의 생활에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ines과 Pleck(1983)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flextime제도가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에 대해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스케줄로 출퇴근시간은 유동적이고 작업시간은 의무적인 제도이다. 이 flextime제도에 대한 생활시간의 변화를 보면, flextime은 가족시간을 약간 증가시켰으며 flextime 노동자는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과 가족갈등에서 낮은 수준의 갈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조기출퇴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대의 변경이 아니라 생활시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며 그 변화는 직장인 본인의 여가시간이나 개인적 돌보기 시간의 증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요약하면 조기출퇴근제는 생활시간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특성들을 지니게 될 것이다.

첫째, 삼성그룹의 조기출퇴근제의 의도가 퇴근후 여가시간의 활용이므로 어학연수나 취미강습과 같은 자기개발의 여가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저녁시간의 여유는 가정생활시간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가사노동시간 특히 자녀와의 유대시간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부인과 자녀의 생활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교통이 혼잡한 시간을 피하여 출퇴근을 하므로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시간의 활용으로 여가시간이나 개인적 돌보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가정생활시간이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생활시간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인 경향일 것이며 개개인의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시간배분의 변화양상이千篇일률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조기출퇴근제 실시이후 생활양식의 변화를 조사한 한국방송공사의 전화인터뷰 결과, 기대한 만큼의 가정생활변화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특히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의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개인의 생활시간과 가정생활의 변화에 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사용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조기출퇴근제 실시이후 부부의 생활시간사용 변화에 대한 인지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라 부부의 생활시간사용 및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3-1.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라 부부의 실제 생활시간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 3-2.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라 부부의 인지된 생활시간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 3-3.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라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는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한 조사연구이다. 남편용 질문지에는 생활시간 전반에 관한 질문과 생활시간에 관한 인지, 조기출퇴근제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부인용 질문지에는 생활시간 전반에 관한 질문과 생활시간 인지, 남편의 조기출퇴근제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질문하는 내용과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가족환경변수를 측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

인지에 대한 문항은 각 영역별 단일 척도로서 4점 리커트 척도(아주 적은 편이다=1, 에서 아주 많은 편이다=4)를,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 문항도 각 영역별 단일 척도로서 4점 리커트척도(아주 불만족=1, 에서 아주 만족=4)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기출퇴근제에 따른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문항은 각 영역별 단일 척도로서 3점 리커트 척도(줄었다=1, 그대로이다=2, 늘었다=3)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김효숙(1983), 이기영 외(1993), Juster & Stafford(198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내용타당성 검증을 거친 뒤 조사에 사용되었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며 조기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는 삼성 그룹의 사무직 직원과 그 배우자였으며, 비교집단으로 삼성그룹과 유사한 대그룹(현대, 대우)의 사무직 직원과 그 배우자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령과 학력, 소득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변수들이 비교적 유사한 집단을 유의 표본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3년 11월 27일에서 12월 10일까지 2주간이었으며, 총200부를 배포하여 그중 129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생활시간의 일반적 경향, 조기출퇴근제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백분율, 빈도 분포를 이용하였고,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TEST와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실시집단		비실시집단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남편의 연령	30세미만	35.1	20	25.0	18
	30세이상	64.9	37	75.0	54
자녀의 수	무	40.4	23	25.0	18
	1명	29.8	17	48.6	35
	2명이상	29.8	17	26.4	19
가족원의 수	2명	35.1	20	22.2	16
	3명	31.6	18	40.3	29
	4명이상	33.3	19	37.5	27
막내자녀의 연령	0-2세	40.4	23	26.4	19
	3-6세	45.6	26	45.8	33
	7세이상	14.0	8	27.8	20
부인의 취업유형	전일제	70.2	40	62.5	45
	시간제	22.8	13	30.6	22
	전업주부	7.0	4	6.9	5
주택유형	단독주택	14.0	8	18.1	13
	아파트, 연립	68.4	39	70.8	51
	다세대주택	12.3	7	9.7	7
	기타	5.3	3	1.4	1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21.1	12	18.1	13
	100-150만원미만	47.4	27	34.7	25
	150-250만원미만	22.8	13	43.1	31
	250만원이상	8.8	5	4.2	3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3.5	2	1.4	1
	대졸	86.0	49	87.3	62
	대학원이상	10.5	6	11.3	9
부인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21.1	12	15.5	11
	대졸	75.4	43	78.9	56
	대학원이상	3.5	2	5.6	5
계		100.0	57	100.0	72

V. 연구결과

1. 조기출퇴근제 실시 부부의 생활시간의 일반적 경향

조사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조기 출퇴근제 실시 부부의 생활시간(평일)

단위(시간 : 분)

영역	남편 (N=57)		부인 (N=5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근무시간	9:24	1:28		
이동시간	1:30	:32		
가사노동시간	1:07	1:13	8:19	4:28
여가시간	4:15	1:38	4:41	2:17
개인적 돌보기 시간	7:47	1:15	8:53	1:20

조기출퇴근제를 실시중인 남편의 평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사무실에 도착해서 사무실을 나올 때까지로 점심시간을 포함)은 9시간24분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평일 하루 평균 이동시간(출근과 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출퇴근제 실시 남편과 부인의 평일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각각 1시간7분과 8시간 19분이었으며, 여가시간은 각각 4시간 15분과 4시간 41분이었다. 개인적 돌보기 시간은 남편의 경우 7시간 47분이며, 아내는 8시간 5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비해 부인의 여가시간은 26분이, 개인적 돌보기는 1시간 6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인의 근무시간과 이동시간은 조기출퇴근제와 상관이 없으므로 표에 그 시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조기출퇴근제 실시이후 부부의 생활시간 변화

조기출퇴근제가 실시된 이후 부부의 생활시간 변화정도에 대한 인지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조기출퇴근제가 실시된 남편들은 조기출퇴근제 실시이전에 비해 여가시간(평균 2.81)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평균 2.81)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인

〈표 3〉 조기 출퇴근제 실시이후 부부의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인지

영역	남편		부인	
	평균(빈도)	표준편차	평균(빈도)	표준편차
부부공유시간	2.75 (57)	.54	2.73 (57)	.58
부부공동 쇼핑시간	2.65 (57)	.52	2.57 (57)	.53
수면시간	1.91 (57)	.66	1.75 (57)	.60
여가시간	2.81 (57)	.44	2.18 (57)	.65
남편의 자기개발시간	2.65 (57)	.52	2.61 (57)	.56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2.30 (57)	.57	2.23 (57)	.59
남편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2.81 (37) ^a	.46	2.69 (37)	.52
남편의 이동시간	1.33 (57)	.58	1.34 (57)	.51
남편의 사교시간	2.23 (57)	.71	2.34 (57)	.70

a : 무자녀 가족이 20이어서 37사례가 됨

지하며, 그 다음으로 부부공유시간, 자기개발시간, 부부공동 쇼핑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인지했다. 이에 비해 부인들은 부부공유시간(평균 2.73)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인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남편의 자기개발시간, 부부공동 쇼핑시간 순으로 늘어났다고 인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연령면에서 30세 주위에 몰려 있으며, 가족생활주기상 대부분이 첫자녀 출생 전 혹은 첫자녀가 미취학인 시기에 속해있다는 점과 많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한편 조기출퇴근제 실시 남편들과 부인들은 조기출근제 실시이전에 비해 남편의 이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인지했다. 이는 조기출퇴근제 실시로 출퇴근시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어 이동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출퇴근제 실시이후에도 변화하지 않은 영역으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수면시간, 남편의 사교시간인 것으로 인지했다.

그러나 가사노동 중에서 남편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가장 많이 늘었다고 인지했는데 이는 남편이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보다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영역이 자녀에 관한 부분임을 말해준다. 수면시간은 생리적인 시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시간이므로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 및 생활만족도 비교

1)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부부의 실제 생활시간 비교(평일)

조기출퇴근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 부부의 실제 생활시간(평일 하루 평균)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남편들의 평일 하루 평균 생활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개인적 돌보기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근무시간, 여가시간, 그리고 이동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비교해보면, 조기출퇴근제가 실시된 남편의 근무시간은 9시간 24분인 반면 비실시 남편의 근무시간은 10시간 48분으로서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24분이 나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경우 조기출퇴근제가 실시된 남편은 4시간 15분인 반면 비실시 남편은 3시간 24분으로서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보다 41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 하루 평균 출퇴근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비교해보면, 조기출퇴근제가 실시된 남편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나, 비실시 남편은 1시간 51분

〈표 4〉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부부의 실제 생활시간 비교(평일)

영역	실시 (57) (평균시간 : 분)		비 실시 (72) (평균시간 : 분)		t 값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근무시간	9:24		10:48		6.03***	
가사노동시간	1:07	8:19	1:59	7:46	-.65	-.75
개인적 돌보기시간	7:47	8:53	7:38	8:41	-.74	-.87
여가시간	4:15	4:41	3:24	4:10	-2.72**	-1.14
이동시간	1:30		1:51		3.27***	

***P<.001, ** P<.01

이 소요되어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 보다 21분이 더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출퇴근제를 실시하는 집단의 경우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엄격히 지켜짐으로 인해 비실시집단 보다 근무시간이 짧으며,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을 피함으로써 이동시간이 줄어들어 여가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부인의 평일 하루 평균 생활시간을 비교해 보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개인적 돌보기 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부부의 인지된 생활시간 비교

조사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조기출퇴근제 실시집단 부부의 인지된 생활시간과 비실시집단 부부의 인지된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부인의 여가시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인지된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조기출퇴근제 실시집단 남편들은 비실시집단 남편들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지했으며(p<.001),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부인의 인지를 보면 실시집단 부인들이 비실시집단 부인들 보다 그들의 남편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지했다(p<.05).

부부공유시간을 보면 실시집단 부부들이 비실시집단 부부들보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수면시간 제외)이 많다고 인지했다(p<.001).

여가시간을 보면, 실시집단 남편들은 비실시집단 남편들 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인지했으나(p<.001), 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면, 실시집단 남편들(평균 2.41)이 비실시집단 남편들(평균 2.00)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인지했으며 실시집단 부인들도 비실시집단 부인들 보다 그들의 남편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인지했다(둘다 p<.001).

이상과 같이 조기출퇴근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 간의 생활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실제 생활시간보다 인지된 생활시간에서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생활에서 조기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의 변화를 실제 늘어난 시간보다 느낌상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여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조기출퇴근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 부부의 생활만족도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즉 가계의 월평균소득, 남편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을 통제했을 경우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생활 만족도와 가정생활 만족도를 보면, 실시집단 부부들이 비실시집단 부부들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표 5〉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부부의 인지된 생활시간 비교

영역	실시평균(빈도)		비실시평균(빈도)		t값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1.61 (57)	1.81 (57)	1.23 (71)	1.49 (72)	-3.68***	-2.49*
부부공유시간	2.70 (57)	2.51 (57)	2.03 (72)	1.90 (72)	-6.78***	-4.95***
여가시간	2.79 (57)	2.18 (57)	1.81 (72)	1.92 (72)	-9.15***	-1.89
남편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2.41 (37)	2.43 (35)	2.00 (57)	1.93 (56)	-2.81**	-2.97**

*** P<.001, ** P<.01, * P<.05

〈표 6〉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영역	실시평균(빈도)		비실시평균(빈도)		t값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부부생활 만족도	3.35 (57)	3.23 (57)	3.14 (72)	3.00 (71)	-2.09*	-2.04*
가정생활 만족도	3.33 (57)	3.04 (57)	3.01 (72)	2.80 (71)	-3.40***	-2.04*
직장생활 만족도	2.87 (56)	2.95 (22)	2.75 (72)	2.92 (27)	-1.17	-.17

*** P<.001, *P<.05

〈표 7〉 주요변수 통제시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만족도

영역	통제변수					
	가계의 월평균소득		남편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F값		F값		F값	
부부생활만족도	3.53	6.68*	3.31	4.05*	2.87	3.32
가정생활만족도	6.37*	5.72*	9.87**	4.59*	8.85**	3.00
직장생활만족도	.99	.32	1.33	.07	.88	.01

**<P.01, *<P.05

는 주요변수를 통제하고서 조기출퇴근제가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부생활 만족도는 가계의 월평균소득과 남편의 연령을 각각 통제했을 경우 조기출퇴근제가 부인의 부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 만족도는 세 변수를 각각 통제했을 경우에도 조기출퇴근제가 남편과 부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막내자녀의 연령

통제시 부인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조기출퇴근제 실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기출퇴근제 실시집단이 비 실시집단보다 남편의 근무시간이 짧고 남편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 만족도의 경우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기출퇴근제 실시집단의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비실시집단의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과 비교하여 조기출퇴근제 실시가 부부의 생활시간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조기출퇴근제 실시로 부부의 생활시간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인지했다. 남편의 여가시간, 가족들과의 시간(남편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부부공유시간, 부부공동 쇼핑시간), 그리고 남편의 자기개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인지했으며 조기출퇴근으로 인해 러시아워를 피함으로써 남편의 이동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인지했다. 한편 수면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사교시간은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지했다.

조기출퇴근제 실시여부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첫째, 실제 생활시간의 경우, 실시집단 남편의 근무시간과 이동시간은 줄어들었고 여가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된 생활시간의 경우, 실시집단이 비 실시집단보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부부공유시간, 남편의 여가시간, 그리고 남편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인지했다. 셋째, 생활만족도의 경우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보다 부부생활과 가정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이라는 조기출퇴근제가 엄격히 지켜짐에 따라 실시집단은 출퇴근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어 이동시간이 줄어들며 또 근무시간이 비실시집단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고 대신, 운동·어학연수·취미강습과 같은

자기개발의 여가시간과 부인 및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생활시간이 증가함으로 인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비실시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조기출퇴근제 실시가 단순히 근무시간대의 변경이 아니라 근무시간의 단축과 병행되면서 남편의 개인생활 뿐만아니라 가정생활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본 논문은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점,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않았다는 점, 시간조사를 질문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밀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만족도 척도가 단일척도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시간조사의 정밀성을 위해서 시간일지법을 이용한 자료조사 및 조기출퇴근제 이외의 효율적인 시간관리 대안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외숙·이기영·최은숙,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 1993.
- 2) 김효숙, 도시와 농촌 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3) 동아일보, 1993년 8월 9일자, 10.
- 4) 삼성사보, 삼성뉴스, 1993년 7월호, 54.
- 5)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 도시 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1호, 1994, 31-46.
- 6) 이현아,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7) 체서일·김범중·이성근,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3.
- 8) 한경미,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9) 森ます美, “長時間労働と家庭生活”, 43-65 in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と生活様式, 1989.
- 10) Bryant W. K. & Wang Y., “Time Together, Time Apart :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Lifestyles : Economic

- & Family Issues, 11(1), 1990, 87-117.
- 11) Feldman L. P. & Hornik J., "The Use of Time : An Intergrated Conceptual-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1981, 403-419.
 - 12) Juster F. T. & Stafford F. P., ed., Time, Good, and Well-Be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5.
 - 13) Nickols S. Y. & Abdel-Ghany,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983, 189-198.
 - 14) Rice A. S. & Tucker S. M., Family Life Management 6ed., N. Y. : Macmillan Publishing Co, 1986.
 - 15) Robinson J. P., How Americans Use Time, Newyork : Praeger Publish, 1977.
 - 16) Staines G. L. & Pleck J. H., The Impact of Work Schedules on the Family, Survey Research Center,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3.
 - 17) Vodanoff P., Work and Family Life, Sage Publication, 1987.